

기념비적 교회 (여호수아 4:1-14)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고 있다.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 같은 문제는 가까이 와 있는 직접적인 문제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은 교회가 변질이 되어서 자꾸 옆으로 나간다. 눈을 뜨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 뿐이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안가고 천국을 간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한다. 우리 교회도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일을 만일 정말로 진짜 한다면 기념비적 교회인 것이다.

흔히 우리는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와 지성을 정복했다고 한다. 아주 조그만 나라이다. 자원도 별로 없고 사람도 많지도 않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계의 경제와 지성을 정복했다는 말을 듣는가?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흔히 하는 말로 이들이 죽어라고 지키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세절기와 십일조이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고 그 관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판단해야 정확해 진다. 언약을 회복할때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다. 언약을 회복해도 나라는 조그마하다. 옆에는 큰 나라도 있다. 그러나 절대 손 못 댈다. 쳐들어 왔다가는 판판이 진다. 언약을 회복하는 동안에 진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 절기를 지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리스도를 여전히 부인하는데도, 십일조가 무엇인가? 나의 삶과 생명을 드린다는 실천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다. 그게 십일조이다. 이런 사상을 그리스도는 부인하지만 성경에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로마서 11장에는 마지막때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혹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확실하진 않으나 여하튼 이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언약, 예배와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세 절기의 언약을 잡은 예배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의 십일조 너무 중요하다. 이 언약과 헌신, 두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형태로든 헌신 없으면 기쁨이나 힘이 없다. 하나님께 헌신해보라. 힘 난다. 손해 보지 않는다. 자꾸 계산해서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는 언약을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다. 그러나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지킨 사람이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가? 십퍼센트도 안될 것이다.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말이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때,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하루에 한번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는다. 그때 나는 모든 힘을 다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면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게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배와 기도 중심의 언약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와 기도 안에 드리는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해 놓은 것이 언약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배와 기도만으로 내 인생 모든 것 해결할 언약을 내가 다 끝내놨어. 이것이 요 19:30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배와 기도이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언약 잡고 예배 드리기 바란다. 타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진짜 언약 잡고 승리하기 바란다.

1. 기념비적인 교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각 지파의 대표가 가서 그 강에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라고 했다. 그것을 기념으로 쌓아 놓으라고 하였다. 조금 더 본문을 읽어 보면 20절에 보면 그 돌을 길갈에다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길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있는 장소이다. 그 중의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

났던 사람들의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하는 것이다. 할례. 거기에 이 열두 돌을 쌓아 놓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돌이 너희에게 표징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후일에 후손이 물어보면 7절에 그때는 요단강물이 넘쳤는데 언약계 앞에서 이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돌들이 후손들에게 영원하게 언약이 되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에 대한 메시지이다. 후손들에게는 이 돌이 의미있는 돌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물이 22키로미터나 밀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아담성읍까지가 그정도 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아주 대단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말한 것이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누군가 인가를 말한 것이다. 언약계를 따라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 언약계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열 두 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념비적 교회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같은것에 신경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벌써 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 출석이 들쭉 날쭉 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신경쓸 필요 없다. 우리가 신경쓸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이다. 그래서 이런 기념비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미국과 남미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게 지난 주에 잡은 메시지이다. 그리고 평소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를 살릴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이다. 미국과 남미 교회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교회이다. 미국 교회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백년의 응답을 받을 교회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여정이다. 될수 있겠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된다면 왜 될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복음을 주었다. 괜히 주고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전달이 되게 되어 있고 전달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시대적인 복음이다. 이해가 안되는 분은 교회사를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라. 책 몇권 보면 된다. 복음이 이렇게 설명된 적이 없다. 그리고 복음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성경적 전도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러면 이것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언약한 것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신경쓸 필요 없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미국에 복음을 전달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도 끝까지 가고 남미도 끝까지 갈 것이다. 아주 틀림 없다. 이것은 믿어지고 언약으로 잡고 언약을 타야 한다. 이런 시대적인 교회가 되자는 것이 오늘 제목이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내 개인이 먼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내 개인이 먼저 미국과 남미를 살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내 개인이 먼저 미국과 남미, 교회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렵게 보일 것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렇지 않다. 아주 쉽다. 복음을 누리면 된다. 복음을 누리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복음을 누리면 복음에 답이나고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전도에 눈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언약한 자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할수도 있다. 가난하고 못배운 사람도 할수 있다. 조건이 뭐가?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된다.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합은 기생이었다.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적국 백성이었다. 그 때는 짐승도 다 죽었다. 사람뿐 아니라. 아이고 뭐고 싹 죽었다.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안디옥 교회였다. 아주 그 인생이 기념비적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 골로새에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다. 잘 아는 이야기이다. 그 주인이 빌레몬인데, 그 집에서 도둑질하고 도망쳤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완전 새사람이 되어서 나중 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거기 자기 주인 빌레몬이 장로였다. 이런 인생 스토리는 기념비 적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복음이다. 이게 완전 역전을 시켜 버린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 중에도 많이 있다. 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증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인생 작품인 것이다. 나는 예전에는 작품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안들어왔다. 어느날부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작품 만들 수 있어. 이유가 뭐가?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답이야. 이게 무기이고, 이것으로 다 사단을 죽이는 거야. 이것이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리스도 저주에서 해방이다. 무조건 필요 없다. 저주에서 해방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이다. 운명 반드시 해방이다. 뱀의 머리 반드시 박살난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을 꼭 써놔야. 우리 중에도 간증문 모으면 이런 사람 많이 있다. 이 언약 잡고 가는 것이다. 이 길을 가면 자동으로 우리 인생중에 안디옥 교회 나타나고 기념비적 인생 되는 것이다. 조건 하나 뿐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누리나?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자꾸 누리는 것이다. 저주에서 해방시켜 줬다. 문제에서 해방시켜 줬다.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 나는 반석위에 세워지니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오늘 내가 졌어도 진게 아니고 절대 그것은 나를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기념비적 인생 될 것이다.

이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백하면 된다.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 자주 이야기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바로 했다. 엄청난 약속 세가지를 받았다. 오늘도 대답을 바로 하면 된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대답을 바로 하면 된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다. 낙심한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이다 때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지 절대 저주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거기서 나오라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언약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더 깊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증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도 문을 열 것이다. 남미는 시작되었고 조직도 형성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에도 문을 열 것이다. 지금도 마쓰다 목사, 리카르도, 레이코 전도사가 애리조나가 있다. 10월의 컨퍼런스를 준비하러 갔다. 중요한 미국의 문이 될 수 있다. 거기 히스패닉 교회가 연결되었다. 올해 가기 전에 LA에서 할수도 있다. 이미 연결된 교회가 있고 몇 목사님들이 있다. 그 주위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자주 컨퍼런스를 해주라고 해서 제가 11월달에 가겠다고 하였다. 9월에도 있고 10월도 있는데 11월 달에 간다고 했다. 장소가 거리가 1000Km나 떨어져서 두군데에서 해야 한다. 쿠바에서도 이야기 해서 12월에 가야 한다. 20주년 스케줄 조정해서 가봐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목사들의 모임이 미국에서도 주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주마다는 아니어도 군데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이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알게 되고 바른 성경적 전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귀하고 시대적으로 귀한 일이다. 이것 없으면 사람들 모여 있으면 겁난다. 뭘 말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겁나는 것이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만명이고 천명이고 상관없다. 이것 하는 교회, 그래서 미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교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가? 믿어야 한다. 언약으로 잡아야 하고 기도해서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축복이다. 렘넌트들도 보고만 있지 말고 마음을 잡아야 한다. 언약 잡고 기도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는지도 모른다. 남미만 아니라 분명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틀림없는 사실이기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틀림없다. 내용은 항상 같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것 체질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가만히 있는데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증인 안되려고 해도 안될 수가 없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해야 하는가? 깊이 되면 더 좋긴 할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누구에게 난 이거 깊이 된다고는 말 못하겠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깊이 되었다. 그래서 24시가 될라나 해서 기뻐했는데, 다시 알아 졌다.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을 비교해 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남미에서 나에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해줘라가 아니다. 목사님을 모올테니 오라는 것이다. 니카라과는 이미 외부 지역과 그 주변의 나라에서 와서 참석할 목사님들 숫자가 이미 85명이다. 거기에는 과테말라 컨퍼런스 할 때 참석했던 분들도 있고 그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돈 만몇천불 이만불 안 쪽으로 들것 같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현금좀 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안되진다. 그래서 싸워야 한다. 여기에 내 인생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할 일 사실 다 한 것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표징

6절에 이것이 너희중에 표징이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 표징은 열두들은 이 언약계의 표징이다. 왜냐면 언약계를 따라갔더니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증거이다.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았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인생을 언약계 따라가며 살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모든 요단강을 항상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다. 그리고 대를 이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에게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하다. 후대는 이 표징을 보고 그 역사를 믿게 될 것이다. 나도 언약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심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남겨서 대를 이어서 표징,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디옥교회이고 기념비적인 교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남아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문 안열어주시면 돈 있어도 소용없다. 길 거리에 돈 뿌리고 다닐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남길 표징이다. 미국과 남미에 우리가 남길 기념비적인 표징이 이것이다.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줘야 할 표징이 이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도 돌무더기 쌓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남겨줘야 할 그 내용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몇가지는 반드시 남겨줘야 한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징이다.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것이다. 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리스도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남겨야 한다. 너는 저주에서 해방이야. 니가 나를 따라오면 너를 저주에서 건져주지. 우리는 그말 할수 있다. 이유는 필요없고, 너는 무조건 나 따라오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저주에서 건져주겠다. 물론 내가 아니다. 너 운명같은 이 문제 역전 시켜서 발판으로 만들어주겠다. 따라와. 사단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거야, 정복하게 되어있어. 반드시 그 머리는 깨질거니까 염려 말고 나 따라와. 이것이 증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보혈의 권세이다. 반드시 이것을 남기고 전달해야 한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대단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누리면 전달된다. 막 말을 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 안된다. 반발만 된다. 내가 누리면 답 된다. 조용히 몇말 하면 답이 된다. 답이 되니까 와서 메시지 해주라는 것 아니겠는가? 답이 안되면 왜 자꾸 와서 해주라고 하겠는가? 내가 누리면 답이 나오게 되었다. 내 입에서 또 한가지 반드시 남겨야 할 표징은 성경적 전도이다. 사도바울이 보여준 전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한다. 조직을 가진 전도를 전달해줘야 한다. 제자를 운용해서 세계를 정복한 큰 그림의 전도를 전달해야 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전도는 대개 영접 정도이다. 기독교방송 간증들을 자주 듣는데, 요사이에는 영접했다는 영접기도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옳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다. 옛날에는 간증 들을때는 그런 소리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요즘 영접 이런 말 나온다. 알게 모르게 영향이 안 갈수가 없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영접 아는것만 해도 대단하다. 옛날에 영접 알았는가? 그런데 영접 안다고 해도 그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세계 복음화 할수 있는 사도바울의 제자 중심의 조직적인 그림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남미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경적 전도, 이것이 우리가 잡을 언약이다. 그래서 렘넌트들 이 두가지 꼭 알아야 한다. 지난 주에 안디옥교회의 콘텐츠는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보았다. 깊이 복음을 누림으로 현장을 정복한다는 것, 복음이다.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 전도를 전달해서 제자를 세워나간다. 이것이 전도이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현장에 전도조직을 세워가는 전도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를 움직이는 큰 그림의 전도를 해야 한다.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그곳으로 부르는 그림이 엄청났다. 로마, 아시아. 우리는 미국과 남미에서 이 일을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 언약 잡고 들어와서 기도하기 바란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면 답을 가진 자이다. 시대가 죽어가고 있다. 교회가 죽어가면 시대가 죽어간다. 발전한다는 것은 교회가 죽는데 발전하는 것은 더 빨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답을 가진 자, 시대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인생의 무기이기도 하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복음과 전도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래서 이 표징을 전달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